

‘무사고 출동 3천회’ 전남 닥터헬기...전남도, 계류장서 기념행사

2011년 9월 운항 이후 11년 9개월만...2801건 이송 성공 “낙도까지 안전 이·착륙하도록 기반시설 구축 힘쓸 것”

전남지역 섬과 오지를 오가며 소중한 생명을 구해온 하늘의 응급실 ‘닥터헬기’가 무사고 출동 3000회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 닥터헬기 계류장에서 ‘무사고 출동 3000회’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목포한국병원 의료진과 헬기 운항사(썬헬기코리아)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2011년 9월 22일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운항 11년 9

월 만인 지난 12일 출동 3000회를 기록했다.
3000번째 출동에선 완도에 거주하는 70대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완도 대성병원 응급실에서 목포한국병원으로 성공적으로 이송했다.
그간 전체 이송 성공 건수 2801건 중 32.4%를 차지하는 908건은 항공이송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환자였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17곳이나 되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남에서 동쪽은 거문도, 서쪽은 국토 최서남단인 가거도가

지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전남권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신속하게 인접 타 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도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섬이 많은 전남은 닥터헬기가 응급환자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낙도까지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인계점 확보 등 기반시설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인공호흡기, 환자 감시장치 등 전문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구비한 이동 응급실이다.

신안=이덕주기자



김도윤(오른쪽) 위드로봇 대표이사와 최홍준 포스코 기술연구원 공정연구소 로봇솔루션연구그룹장이 스마트 와이어 로봇 개발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뒤 스마트 와이어 로봇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 직원 안전 위해 ‘모바일 로봇’ 적극 개발 로봇솔루션연구그룹·위드로봇·에이디로보틱스와 협약

포스코가 직원들의 안전과 설비 관리 강화를 위해 모바일 로봇 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포스코 기술연구원 공정연구소는 지난 16일 로봇솔루션연구그룹과 위드로봇, 에이디로보틱스와 각각 스마트 와이어 로봇솔루션 및 4족 보행로봇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포스코가 위드로봇과 공동 연구하는 스마트 와이어 로봇은 영상·음향·열적외선·라이다 같은 다양한 센서를 모듈로 장착한 뒤 케이블 카처럼 줄을 타고 이동하며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를 감지하고 찾아내는 로봇이다.
기존 고정형 감시카메라는 제철소 공간에 설치하려면 워낙 여러 대를 설치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스코는 위드로봇과 공동 연구를 통해 영상과 센서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와이어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와이어 로봇을 만들어 제철

소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접근성이 제한된 제철 설비 진단을 위해 에이디로보틱스와 협력해 설비점검용 4족 보행 로봇의 개발도 추진한다. 제철소 설비점검 작업은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작업이지만 일부 설비는 작업자의 접근이 어려워 안전에 부담을 주는 사례로 꼽힌다.
포스코는 위험한 설비와 환경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기술을 독자 개발해온 에이디로보틱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험 설비점검용 4족 보행 로봇을 개발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화된 모바일로봇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그룹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광주 최대 야시장 축제 남도달밤야시장 내일 개장 공연·전시·문화예술 등 한 자리에...11월 18일까지

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동구 대인시장에서 남도달밤야시장을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남도달밤야시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부터 10시까지 열린다.
남도달밤야시장은 ▲시즌1·7월까지 6회 ▲시즌2·9월 3회 ▲시즌3·10월 4회 ▲시즌4·11월 2회 등 4개 시즌 15회에 걸쳐 테마

형 야시장으로 운영한다.
개장일인 23일에는 푸드장터·음악 공연·스마트관광체험·전시·문화예술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남도달밤야시장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예술을 즐기며 한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광주 ‘3대 사망사고 제로화 시민실천단’ 본격 활동

광주 3대 분야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본부 시민실천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날 30일 발생한 3대 분야 사망사고 줄이기 시민실천단은 이날 출근시간대 하남산단 일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첫 활동을 펼쳤다.
시민실천단은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 운영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정 지침 주요사항을 홍보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평가방법 다양화 ▲평

가시기 명확화 ▲근로자 참여 확대 ▲평가결과 공유 등의 내용을 담아 위험성평가 지침을 개정했다.
시민실천단은 다음 달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관련 홍보를 하는 등 매달 주제를 정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시민실천단 활동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며 “유관단체와 협력,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광주 광산구, ‘꿈에뽀짝 지도사’ 학습자 대상 취업 특강 진행 이야기꽃도서관 1층 너른마루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1일 이야기꽃도서관 1층 너른마루에서 꿈에뽀짝 지도사 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멘토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의 지원으로 마련했다.
광산구에서 운영 중인 ‘꿈에뽀짝 지도사’ △실버인공지능지도사 △토의·토론&책놀이지도사 △진로·학습코칭지도사 △미술심리상담지도사 △방과후로봇코딩지도사 △전래놀이&세계놀이문화융합지도사 등 6개 과정 학습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특강은 컬러테라피(색채심리)검사, 취업서비스 이해 및 구직전략 등 자신감과 취업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꿈에뽀짝 지도사 과정에 참여한 시민이 학습을 넘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한국연륜진흥재단
Korea Pension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능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액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1배	240,833원
4분위	125,531원	1.7배	125,531원
3분위	79,147원	2.1배	79,147원
2분위	48,103원	2.7배	48,103원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5.3배	26,697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당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